

집 떠나면 개고생?

집 떠나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사건들



라온아띠 단원들은 주 활동지역인 카바나투안 시터를 떠나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팔라안 시터에서 워크캠프Workcamp를,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여성역량강화사업Women empowerment project 탐방을 떠났다. 그 누가 말했는가?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물론 고생은 조금 했다. 그러나 라온아띠 팀원들은 고생 못지 않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집을 나와서.

<이달의 인물> 워크캠퍼Work camper 4총사-에프렌, 이안, 조말, 페리



Ian, Perry, Jormal, Efren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Efren(21) : 워크캠퍼 4총사의 만형이자 캠프 4년차의 최고 경력자로서, 라온아띠는 그를 '천재 기타리스트'라고 부른다. 워크캠프 당시 매일 밤, 그의 영원한 단짝 Ian과 함께 작은 콘서트를 개최해 라온아띠들을 낭만의 밤에 취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들이 연주하는 'Wonderful tonight'은 Aeta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함께 어우러져 모두를 감동의 쓰나미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며, 너무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이다.

Ian(18) : 워크캠퍼 4총사의 최고의 귀염둥이이자 스마일 가이. Efren의 권유로 처음 캠프에 참가하게 된 그는 어느새 캠프 3년차의 경력자가 되었다. Efren과 같은 밴드에 속해있으며, 그 역시 기타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 특히 Miss Mundo Festival 당시 'Cristina'로 깜짝 변신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무더운 더위에 맞서 "Sobrang Init"을 외

치던 그의 노래는 라온아띠를 더욱 불타게 만들었다.

Jomar(18) : Gwapo(handsome) Jomar. 라온아띠가 Aeta에서 머문 지 3일 뒤부터 캠프에 합류한 그는 Efren, Ian, Perry와 더불어 또 다른 워크캠프 에이스로 부상하였다. 망치와 못, 톱만 있으면 뭘든지 똑딱 만들어 버리며, 그 역시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다. 특히 그가 항상 외치던 "Mali(That's wrong)"의 억양은 가히 독보적인 가치를 가졌으며 모든 캠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에 중독되어 하루 종일 "Mali Mali"를 외쳐댔다.

Perry(16) : 워크캠퍼 4총사의 막내. 현재, Aeta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는 Aeta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른 캠퍼들의 으뜸 가이드였다. 누구보다 부지런 했으며, 아침엔 항상 가장 먼저 기상하여 커피 한잔과 함께 모든 캠퍼들의 아침을 맞이해 주었다. 특히, 필리피노 캠퍼들과 라온아띠가 가진 토론에서 막내답지 않은 당찬 주장과 포부를 내세워 모두에게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Miss Mundo Festival의 MC로서 능숙한 진행 실력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커버스토리 -----	1
<p>집 떠나면 개고생? 집 떠나서 만난 새로운 사람, 사건들 <이달의 인물> 워크캠퍼 4총사 - Efren, Ian, Jormal, Perry</p>	
워크캠프 -----	3
<p>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타의 24시 라온아띠,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을 보다 아이타의 어린이들 120명의 학생들, 라온아띠와 함께 캠프에 합류하다 황홀했던 그날 밤.</p>	
워크캠프 개인 에세이 -----	6
<p>No. 1 camper HERE! No Work No Food! It's full of irony Eat, Pray, Work 단순한 삶의 무게</p>	
Women empowerment in Aurora -----	13
<p>라온아띠, 알카라의 나나이 집에 방문하다 라온아띠, 1주일간 파라다이스에 머물다 라온아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해 천국에서의 소풍은 이런 맛 - 알카라 어머니들과 떠난 유쾌한 소풍 한 번 놀아볼까? - 라온아띠, 오로라를 떠나는 마지막 날</p>	
Women empowerment in Aurora 개인 에세이 -----	16
<p>Aurora in a tropical region 또 다른 엄마가 있는 곳으로 환상의 Aurora, 화사한 기억을 남기다 오로라에서 만난 나나이 유쾌한 엄마들과 함께한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1주일</p>	



그것이 알고 싶다! Aeta(아이타)의 24시



휴식시간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기타를 배우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햇살이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벽 5시. 라온아띠를 비롯한 9명 들은 냄비에 가득 끓인 특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누구는 밤사이 굳은 몸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고, 누구는 커피를 끓이던 모닥불 곁에 앉아 있다. 그런 그들 옆에는 빈 물통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누군가 ‘물 뜨러 가자 Fetch the water!’라고 외치면 그들의 ‘진짜’ 하루가 시작 된다. 한 손에 물통을 하나씩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착한 10분 거리의 펌프에는 벌써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순서가 되어 물통에 물을 가득 받아 돌아오는 길. 고난의 시작이다. 남, 녀 구분 없이 자신의 몫을 바들바들 떨리는 손, 어깨, 다리로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조심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10분이 1000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떠온 소중한 물로 직접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한 후 찾아온

슬슬 지겨워 질 때쯤 야영지 내에 있는 쿠보(대나무 정자)를 수리하기 시작한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뼈대를 하나씩 교체하고 다듬고 벗길로 새로운 지붕을 만들고. 딱딱딱딱 평균 연령 20세의 어린 캠퍼들은 이미 자칭 형그리 건축가이다. 칼을 제외한 이렇다 할 전문 도구도 없이 오직 대나무를 다듬어 모든 것을 해낸다. 동시에 지난 밤 활동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야영지를 청소한다. 꽤 넓은 학교부지를 9명이 나누어 쓸고, 줍고, 분류하고, 쓰레기를 묻을 구덩이를 파고. 햇볕이 가장 따가울 때에 하는 이 일들은 사실 가장 귀찮고도 고달픈 일이다. 이미 캠퍼들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남자 캠퍼들은 옷을 벗어 던진다. 어느새 시간은 점심식사를 할 시간이 되어 현지 요리(시니강, 방우스 등)로 간단히 식사를 한 후 다시 맛은 휴식 시간은 너무나 달콤하다. 오후의 시간은 대부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보낸다. 각종 게임, 그림 그리기, 춤 배우기, 태권댄스 등 다양한 활동이 캠퍼들에 의해 진행 된다. 수업이 끝난 후 다같이 채소를 다듬고 이야기를 하며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매일 찾아오는 어린 방문객들(지역 아동, 매일 저녁식사를 위해 찾아옴)을 대접한다. 이 후의 시간은 자유시간인데 대부분 샤워를 위해 펌프로 이동한다.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자 행복한 순간. 비록 많은 물은 아니지만 열정적인 펌프질 후에 붓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이다. 이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은 약 9시. 한 국이었다면 이른 시간이지만 자리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 둘씩 잠드는 평화로운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라온아띠,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을 보다



라온아띠는 아이타Aeta에 머무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치토Chito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등의 일손을 도왔다.

현재, 치토Chito신부는 1000ha에 이르는 상당 주변의 부지를 농작지로 개간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작업장 내에 대형 쿠보(대나무로 만든 정자)를 설치하여 친환경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70여 회의 대학 강좌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주일간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라온아띠 박진영 단원은 “치토Chito신부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보면서 크게 감명 받았다. 이 곳, 필리핀에서의 쓰레기 매립, 무분별한 벌목 등을 지켜보면서 친환경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에코투어와 같은 멋진 대안을 보았다. 특히나, 환경과 더불어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니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 라고 말을 전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Aeta아이타의 어린이들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그리고 카바나투안 시티 CABANATUAN CITY에서의 2개월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카바나투안 시티, 프리마베라 홈즈’ 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곳에 온전히 적응해 버렸다. 그런데 단원들은 그렇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카바나투안 시티를 떠나 팔라얀 시티 PALAYAN CITY에서 워크캠프를 보내게 되었다. 14일간의 워크캠프는 단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단원들이 주로 생활하는 야영지는 칼리카산 Kalikasan 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지만 매일 단원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물은 구하는 문제와 치토 Chito 신부님의 유기농 농장 일을 돕기 위해 농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원들은 하루의 적지 않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바랑가이(따갈로그어로 마을을 이르는 말)를 가로지르는 길 위에서 보낸 시간들을 단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선사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이다. 동생 손을 꼭 잡고 놀러 가는 어린 친구에서부터 빨랫감을 잔뜩 머리에 이고 빨래하러 가는 나나이(따갈로그어로 ‘엄마’를 이르는 말)들, 집 앞에서 텃밭을 일구는 할머니, 술잔

을 기울이며 포커를 치는 아저씨들까지 자연스럽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부족한 따갈로그 실력이지만 짧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며 웃고 또 웃었다.

단원들을 웃고 울게 만든 어린 친구들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의 기회는 매일 오전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진행되었던 어린이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원들은 무엇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함께 놀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에 가까웠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관계에다가 친구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나이차이도 너무 많이 나지만, 단원들과 Aeta의 어린이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한쪽 어깨에는 새총을 매고 맨발로 그 뜨거운 땅바닥을 잘도 뛰어다닌다. 나무를 타는 건 기본이고, 돌을 던져 나무 열매도 잘 맞춘다. 작은 체구에도 자기 만한 동생을 업고, 안으며 잘 돌본다. 물을 길는 것과 빨래를 하는 것도 그 작은 손으로 어른들과 함께 자기 몫을 해낸다. 단원들이 준비한 것은 짧은 교육 프로그램과 밥 한끼에 불과했지만, 어린 친구에게서 오히려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뜨거운 여름,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함께 마을을 뛰어 다녔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120명의 학생들, 라온아띠와 함께 캠프에 합류하다.



지난 5월 5일, 라온아띠의 워크캠프 장소인 Aeta에 120명의 학생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1박 2일간 라온아띠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캠프를 즐겼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그룹을 나뉘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해먹을 설치했으며 물을 길거나 요리를 하는 등 능숙하게 캠프환경에 적응하여 라온아띠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날 밤에 진행된 캠프의 하이라이트, 프레젠테이션은 라온아띠와 그들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로 빠지게 만들었다. 10개의 그룹들은 각 그룹별로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라온아띠 역시 댄스와 태권무를 선보여서 엄청난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룹별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은 밤 하늘의 별빛을 조명 삼아 뽁뽁 터지는 음악소리와 함께 화려한 춤사위를 즐겼고, 마을 주민 역시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다. 또한, 각 그룹들은 편지, 목걸이, 액자 등 자신들이 직접 만든 선물을 라온아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라

온아띠들은 크게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하였다.

한편, 6일에는 라온아띠와 120명의 캠퍼들이 함께 Aeta 마을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성당 주변 환경미화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라온아띠 조현경 단원은 “처음엔 너무 덥고 낮은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적잖게 당황했으나 다른 캠퍼들이 온 후, 나쁜만 아니라 우리 팀 역시 활기를 되찾은 거 같다. 그들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였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황홀했던 그날 밤

라온아띠, 작별 파티를 끝으로 성공리에 워크캠프 마무리 해

지난 5월 14일, 14박 15일 간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Work camp의 화려한 막을 장식하는 fare well 파티가 있었다. “wonderful tonight”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파티는 정말 말 그대로 wonderful했다.



라온아띠와 YMCA의 youth들의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파티는 먼저 라온아띠가 준비한 한국의 전통게임인 투호로 시작되었다. 본 게임은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후의 1인 보다는 보다 많은 아이타 아이들에게 상품을 주고자 의도되어 있었다. 게임에서 이긴 아이들에게 이상엽 단원이 한국에서부터 협찬 받아온 노트와 자, 재활용 용지로 만든 연필 등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라온아띠는 태권댄스, 기타연주와 노래, 코믹 댄스 등을 선보여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고, Ymca의 youth와 라온아띠 박진영 단원이 만들어낸 Miss Mundo2011의 여과는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같은 멤버들 역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우스꽝스러운 그들의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한 아이타 아이들의 춤에 대한 굉장한 열정에 라온아띠 역시 저질체력을 감추고 그 날 만큼은 평소 찾아볼 수 없었던 7세 친구들만큼이나 강인한 체력으로 댄스에 동참했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No.1 camper HERE!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Youth들이 계속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또한 Youth들 스스로, 더불어 나도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5월 2일부터 15일까지의 Work camp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한마디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정말 매일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치의 물을 길러오기 위해 눈썹도 못 떼고 양동이 들고 걷고 걸어 도착한 수원에서 아침운동이라 여기며 열심히 펌프질!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를 바들바들 떨리는 손에 곱게 들고 다시 야영지로 돌아온다.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 물 바가지, 휴지, 냄새를 참아내는 인내심까지 챙겨야 하고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이 곳에서의 하루하루는 항상 부지런해야 했고 인내해야 했다. 그렇기에 나는 그렇게 되려 노력했다.

사실 이번이 내 생애 첫 워크캠프 참가였는데 내 기대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나는 많은 수의 로컬 캠퍼들의 참여와 체계적인 스케줄 안에서 리더십이나 Youth로써 갖춰야 할 소양 같은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원활히 돌아가지 못한 것 같았다. 비록 매일매일 할 일은 있었고 바빴지만 어딘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모든 할 일이 그저 야영지 청소나 쿠보(대나무로 만들어진 정자.) 수리 등 육체적인 일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캠퍼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보낸 첫 3일에 의문점과 더불어 가장 큰 회의감을 느꼈었다.

그래도 우리는 몇 가지 주된 활동을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물 길러오기, 쿠보 수리, 오후에 진행되는 근처 아이들의 수업,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 치토 신부님의 농장에서 받을 가꿨다. 물론 힘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해 물고기를 잡았다고 할까?



또한 일정 중에 120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1박 2일간 같은

야영지에서 머물며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교류 활동과 함께 주변 평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다. 더불어 2주차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모리토의 World youth situation과 Effect of Globalization에 관한 수업은 흥미로웠다. 로컬 캠퍼와 우리가 팀을 나누어 각자 나라의 Youth이 마주한 문제들을 나열해보고 서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사실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도 청소년임에 불구하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범죄 소식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했다. 요즘 대부분의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독립심이 떨어질뿐더러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라는 목적도 의미도 퇴색되어 버린 무제한 경쟁에 내몰려 창의성이라고는 없는 와플 찍어내듯 일반화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 남보다 앞서가지 못 할지언정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Youth들에게 너무 과한 짐을 얹는 것은 아닐 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미 지구화가 진행된 이 시대에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해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지 그 의미가 궁금하다.

공부, 공부, 공부, 그리고 또 공부. 공부 의외에 것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충분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어렸을 때 다양성을 경험하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마주하는 날 분명히 그 한계점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내 첫 외국인 친구와 나는 생각하는 깊이가 벌써부터 차이가 났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계속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들 스스로, 더불어 나도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Farewell에서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와 필리핀 게임을 주민들과 함께하였고 태권체조와 다양한 한국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필리핀 국민들은 원래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더욱 뜨겁고 활기찬 밤이 될 수 있었다. 이 날은 비록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그 분들이 나를 기억하지 하더라도 내가 평생 기억하며 즐거워할 또 다른 추억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5시부터 시작된 Farewell이 9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의 열기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 피곤해서였는지 막바지에 의자에 앉아 잠깐 졸았었는데, 일어나보니 동네 아이의 어깨에 기대있는 날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잠에서 깨니 계속 더 자라고 어깨를 내어주는 내 반도 채 안 되는 몸집의 아이 얼굴을 보니 너무나 고마웠던 동시에 미안했다. 비단 내가 어깨에 기대있어서 힘들었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예뻐고 충분히 보답해 주지 못했던 지난 15일간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한번 꼭 안아주고 막바지 정리를 하고 나니 벌써 저녁 11시. 다이나믹했던 워크캠프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다시 아침이 왔다. 정겨운 BMW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15일간의 워크캠프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총 9명의 소수정예제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해 캠퍼 간에 더욱 깊은 정을 쌓을 수 있었고 적은 인원들이 힘을 합해 정원을 정리하고 쿠보를 수리하고…… 모든 것을 힘을 합해 푹푹딱딱 끝냄으로써 성취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매 순간순간이 생전 처음 접하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었더라도 나는 이제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도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샤워를 할 수도 있다. 직접 불을 지펴 밥을 할 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밥을 일구는 법도 알고 쿠보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안다. 남들이 보면 별 것 아닌 것들이고 한국에 돌아가면 일생에 단 한번을 쓰지 않을 쓸모 없는 배움이라 할 지라도 나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것에 감사한다.



아이타에서의 첫 날 저녁. 우리는 별을 보기 위해 잔디 위에 웅기중기 모여 누워 별뿔별을 찾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다. 아이타의 밤 하늘은 별들이 가득 수놓고 있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났다. 아이타에서의 배움과 느낌을 통해 내 모습, 내 마음이 한결 더 빛나길 바라며 아이타에서의 시간을 가슴 한편에 곱게 간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우리도, 아이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도 별처럼 항상 반짝반짝 빛나길.

조현경 기자 <ggle1501@nate.com>

No Work, No Food!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 햇살도, 억수같이 퍼붓던 소나기도, 양 어깨에 대포를 걸치고 십 리를 거니는 것처럼 느껴졌던 물 걷기도 그들에겐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못하였다.

“So Hot”을 외치며 하늘에게 투정부리기 보단 “Sobrang Init(필리핀 유명 락그룹의 노래)”을 소리쳐 부르는 여유로움은 그 어떠한 젊음의 모습보다 위대했고, 한 편으론 부럽기도 하였다. 나의 젊음은 왜 가슴 속에 파묻혀 고이 숨죽이고 있는 것인지 홀로 생각하게 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못하리. 장난스레 시작된 이 말은 결국 우리 캠퍼들의 모토가 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밥 먹자는 다소 일차원적인 발상이지만, 이 또한 캠프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부지런히 일하였다. 아니, 열심히 일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였다. 비록 큰 도움을 주지 못 할지 언정.

Work Camp !? Camp for Work !?

사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Aeta Summer Work Camp’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캠프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생활하며 의견을 공유할 다른 캠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지

역사회와의 소통보다는 공동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육체적으로 금방 지쳐버리기 십상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지역사회 및 캠퍼들 간의 교류활동을 꿈꾸었고, 예컨대 Aeta의 특성상 물이 매우 귀중하다고 여겨졌기에 그룹을 나눠서 마을의 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조사해보는 활동 등을 해보길 원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계획된 학교주변 정리작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하릴없이 환경미화에 더 많은 힘을 쏟아 부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가장 주된 작업이었던 Kubo(대나무로 만든 정자) 보수작업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기에 선뜻 나서서 일을 돕기도 어려웠다. 때문에 YMCA 자원봉사자 4총사 친구들(Efren, Ian, Perry, Jormal)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고, 그들은 정말 쉴 새 없이 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웠던 점은 4총사 친구들은

그들만의 흥을 불어넣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였다는 점이다.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 햇살도, 역수같이 퍼붓던 소나기도, 양 어깨에 대포를 걸치고 십 리를 거니는 것처럼 느껴졌던 물 길기도 그들에게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못하였다. “So Hot”을 외치며 하늘에게 투정부리기 보단 “Sobrang Init(필리핀 유명 락그룹의 노래)”을 소리쳐 부르는 여유로움은 그 어떠한 젊음의 모습보다 위대했고, 한 편으론 부럽기도 하였다. 나의 젊음은 왜 가슴 속에 파묻혀 고이 숨죽이고 있는 것인지 홀로 생각하게 된다.

What's going on here!? Irony !

이번 워크캠프기간 동안에 아이러니한 상황에 맞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시 말해, 가치적인 면에서 크게 상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 왜 이렇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나의 생각을 토로하기엔 아직도 이 곳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선뜻 비평을 하고 나설 순 없다. 다만, 나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라온아띠 활동이 끝날 즈음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이 궁금증들이 풀리길 희망할 뿐이다.



먼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쓰레기를 수거하여 구덩이에 모은 뒤 소각하는 것이 이 곳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었고,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했건만, 캠퍼들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또 달랐다. 소각을 하게 될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기에 불에 태우지 않고, 땅에 파 묻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쓰레기를 묻기 위해 새로운 곳에 땅을 파기 시작하니, 이미 땅에 파 묻혀 있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썩지 않는 비닐류를 포함하여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들이 땅을 파면 팔수록 쏟아져 나왔고, 우리는 또 다시 그 쓰레기들과 함께 새로운 쓰레기를 파묻었다. 과연 이 것이 소각하는 것보다 환경보호에 더 효과적일까? 땅에 파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썩어 분해되는 것일까? 적잖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그들의 처리방법을 따랐다.

한편, 우리는 신부님이 진행하는 농장사업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매일 아침 밭으로 향했고, 한 날은 ‘One Million Trees’라는 단체에서 농장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방문과 동

시에 강 건너편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을 사이에 두고, 한 편에서는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단체가 서있고, 그 맞은 편에는 엄청난 산불이 수 많은 나무들을 집어 삼키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산불을 제압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먼저인가, 나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먼저인가. 이에 대한 답은 너무도 어려울 듯하다. 분명한 것은 치료만큼이나 예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접근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아직은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가 없으며 옳고 그름을 내세우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는 것들이라 생각함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New experience, New Friend, and New Memory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맞이한 2주간의 워크캠프. 삭막한 도시 속을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산골마을에서의 짙막한 삶은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선사해주었고, 그 회로애락의 순간들을 함께한 Efren, Ian, Perry, Jormal, Manuel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No.1, Kuya David는 어느새 최고의 친구들이 되었다.

또한, 잔디밭에 드러누워 밤 하늘을 수 놓은 별들을 보며 오손도손 이야기하던 그 순간,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하나로 Aeta의 아이들과 “지송-빠-레”를 노래하던 그 순간, 예쁘게 치장하고 ‘Miss Mundo’의 스테이지를 호령하던 그 순간. 순간 순간의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의 추억들이 되었고, Aeta, 그리고 모든 우리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It's full of irony



무엇보다 이번 work camp를 통해 왜? 라는 의문을 갖는 것과, 사물이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반감과 어떤 지시에 대한 불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제기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과 무시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 까지도.

난생 처음으로 참가하는 work camp!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3월 한 달 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valle cruz에서의 수업이 살짝 지루해질 때쯤 찾아온 기대되는 새로운 이벤트였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지난 15일 동안이 약간 헛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번 work camp는 좋은 것이 무조건 좋다고 믿고 살던 나에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첫 날 캠프장에 도착한 나는 너무나 좋은 경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조용한 마을, 내가 봐온 필리핀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의 아이들, 이 곳에서의 work camp라...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물도 없고 불도 없는 이 곳에서 과연 내가 15일을 즐길 수 있을까란 질문과 함께 도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나를 압도했다.

하지만 15일 간 이 곳에서 지내면서 나는 몇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였다. 사실 필리핀에서는 집에서 쓰레기를 내 놓으면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dump site로 싣고 간 뒤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아무 공기 정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아침을 물을 길러오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 모아 모으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것 역시도 '필리피노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 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그 일에 동참했다. 그러나 학교 뒤뜰에 떨어진 바삭 마른 나뭇잎들을

쓸어 모아서 한 곳으로 쌓아 놓는 일은 9명의 캠퍼들이 거의 반나절의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깨끗하다 할지라도 행여나 부는 바람 한 점에도 마른 나뭇잎들은 또 떨어지고, 모아 놓은 나뭇잎들 역시도 바람에 다시 날려 학교 뒤뜰을 다시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뭘까?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저 자연스럽게 두면 될 것을 이렇게 바람 한 점에 또 더럽혀질 것을 모으고 또 모아서 무엇에 쓰려는 걸까? 혹시나 모아서 태우려는 걸까? 그래서 나는 함께 참가한 캠퍼에게 물었다. '혹시 이것들을 모두 태울 요량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이냐?'고. 그러나 그 친구는 나에게 대답해주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킨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쓸어모은 나뭇잎들과 함께 섞여있는 이 쓰레기들을 이 자리에서 소각하게 되면 그 연기가 대기오염을 야기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태우기보다는 모아두고 그 사람의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음, 그래 그렇지 효율적인 일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니까!

이건 이렇다 치자, 그렇다면 그렇게 대기오염을 걱정하던 분의 다음 지시를 들으면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며 놀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을 지난 15일간 우리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대기오염을 걱정하며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길 원했던 그 분의 다음 지시는? 쓰레기를 묻을 땅을 파라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쓰레기를 소각하면 생길 대기오염을 걱정해서였을까? 아니면 토양오염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냥 간과해버린 것일까? 더 한 것은 우리가 땅을 파던 그 곳과 같은 자리에 누군가가 이미 쓰레기를 양껏 묻어 버려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 다다르자 더 이상 흙이 아닌 쓰레기가 파헤쳐지는 것이었다. 뭐야? 지난 시간 동안 환경에 대해 고민해왔던 순간들은 모두 헛된 거였나? 심지어 워크 캠프에서도 환경에 대해 얘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니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땅에 쓰레기를 가득 묻고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한 일은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일단 심으라니까 열심히 심기는 했다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명 장면 에 난 또 녀를 잃었다. 15일 중 몇 일 동안 신부님의 농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농장 일을 할 때였다. 그 날은 아주 크게 산불이 나서 산의 한쪽 면이 온통 불로 뒤덮여 초록 초록하던 산등성이가 시커먼 재로 변하던 순간이었다. 물론 산불이 나면 한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자연재해에 다짜고짜 맞서기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

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9에 신고를 하고 걱정스레 우리의 자연을 지켜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날 때 마침 옷에 one million tree라는 글자를 새긴 단체의 일원들은 엄청나게 불어난 산불을 레코딩하고 그것과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이것이 아마 지난 15일간 있던 일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명 장면이었던 것 같다. 우리와 함께 동반했던 대학생 120명 또한 일제히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기록하기에 급급했고 산은 그들의 열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더 크고 무섭게 타 들어 가기 시작했다.



지난 15일간 물론 기억에 남는 좋은 일들, 도시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생활에서 오는 다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참 많았었다. 또한 씨를 심고, 물을 길러 오기 위해 매일 아침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500번도 넘는 펌프질을 해서 10L 혹은 15L가 되는 물통을 개인당 하나씩 들고 돌아오는 일도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한 farewell party. 그 뜨거운 밤을 잊을 수

가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캠퍼들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밥을 하고 남은 모닥불 앞에서 시원한 콜라 한잔과 함께 기타선율에 잘 어우러진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work camp에서의 밤을 더 로맨틱하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잔디를 침대 삼아 등을 대고 누워서는, 밤하늘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감상했던 순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work camp를 통해 왜? 라는 의문을 갖는 것과, 사물이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반감과 어떤 지시에 대한 불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제기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과 무시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 까지도.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Eat, Pray, Work



곧 필리핀의 미래가 될 아이들과 또한 몇 년 후 한국을 움직이는 주역이 될 우리들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기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손으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물론 세상을 변화 시키기 전에 우리에게겐 주어진 일이 있다. 먹고, 기도하고, 일할 것.



2주일 간의 Work camp는 kalikasan의 강렬한 태양아래 검게 그을린 피부처럼 아직도 강렬하게 머리 속에 남아 있다. 재미에 몰려가면서 망고를 먹겠다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산을 뛰어다니던 기억도, 새벽이면 일어나 땀 흘리며 떠오던 물도, 모닥불에 해먹던 밥을 비롯하여 모든 일들이 어제 일인 마냥 강렬하다. 그렇게 많은 수의 캠퍼들은 아니었지만 약 15일간의 합숙은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필리핀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간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Work-camp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이다. 시작부터 그리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예정되었던 대로 많은 참가자들이 합류하여 곧 활기를 띠는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여러 이유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웠다. 1주가 지나서일까? 그렇게 캠프에 익숙해질 때쯤 제법 고정된 숫자의 캠퍼들과 함께 워크 캠프가 진행되었다. Aeta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신부님의 도움으로 공동작업장에서 일부분 작업을 나눠 받았으며, 우리가 머물던 초등학교를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아쉬운 점이 남는다. 처음에 라온아띠와 함께 계획했던 일정과는 상관없이 상명하달 형태로 진행되었던 점은 청년들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계획된 Work-camp의 의도와는 어긋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평소에 경험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배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 만족 한다. 하지만 Work-camp가 라온아띠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현지 참여자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육체적인 노동이 과중이 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건들도 work-camp기간에 발생 하였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 종류의 잘 썩지 않는 쓰레기들을 따로 분류하여 매립 하라는 요구에 땅을 파면서 발견되는 매립된 플라스틱을 보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흙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NGO단체에서 나와 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뜻의 티셔츠를 입고 나무를 심으며 또 한편으로 밤 낮으로 끊이지 않는 산불을 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앞날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한번은 약 120명의 대학생들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학교로 2일간의 캠프를 왔다 가고 난 후 빨감으로 사용한다고 부서

진 학교 펜스와 널 부러진 쓰레기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캠프는 잊지 못할 기억들로 가득 찬 것 같다. 특히 약 2주일간의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과 함께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나누었던 몇 번의 토론을 통해 필리핀 젊은이들이 그들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필리핀 사회를 좀 더 깊이 직접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와 별개로 같이 먹고, 일하고, 씻고 자는 일상을 통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2주간의 시간은 좀처럼 갖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했던 나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본다. 곧 필리핀의 미래가 될 아이들과 또한 몇 년 후 한국을 움직이는 주역이 될 우리들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기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손으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먹고, 기도하고, 일할 것. 아직도 밤이면 울려 퍼지던 기타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수많은 별뿔별이 강렬한 꿈처럼 남아있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단순한 삶의 무게



불편함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서로 돕게 했다.
그리고 힘든 만큼 작은 일에도 행복해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했다.

물도 전기도 없는 생활을 상상해 본적이 있나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편리함이 사라진 곳에서 보낸 14일. 그 곳에서 우리는 불편한 기색을 내보일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독 불편하게 다가왔던 생활의 조건들은 이 곳 주민들에게 일상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먹고 자는 단순한 생활의 의미. 그리고 그 무게를 뼈저리게 느낀 14일. 워크캠프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켰다.

우리의 캠프장소는 팔라얀 시티 Palayan city 바랑가이 도나 호세파 GRGY Donna Josepa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 마을은 약 70여 가구의 아이타 부족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마을 전체를 산이 감싸고 있고 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우리를 처음 맞이 한 사람은 페리와 마을의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한쪽 어깨에는 새총을 매고 나무에 올라탄 채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해주었다. 페리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의 방문을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첫 날, 정신 없이 반갑게 인사하고 밤에는 하늘 가득히 들어찬 별빛 아래서 낭만에 젖어 지나갔다.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

워크 캠프 전부터 우리 팀원들은 워크캠프에 대한 계획, 일정표를 안내 받았다. 그러나 일정표 대로, 계획 대로 되는 건 거의 없었다. 모리또(Nueva Ecija YMCA 사무총장)는 “워크캠프는 먹을 것을 떠먹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적잖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계획과는 멀어져 버렸지만 이곳에 떨어져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은 불평만 할 수는 없게 했다.

첫 번째 주, 우리의 생활은 아주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불을 피워 커피를 마시고 물을 길으러 언덕을 넘어갔다 온다. 장작을 패고 불을 피워 아침밥을 지어먹고 설거지를 한다. 치토 신부님의 유기농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돕는다. 그리고 학교 곳곳을 정돈하고(한 쪽에서는 마을의 어린이들을 가르친다.) 다시 점심을 위해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설거지를 다시 하고, 몇몇은 씻으러 물을 찾아 멀리 이동한다. 더위를 피해 쉬다가 다시 식사준비를 한다. 물이 부족해서 간혹 물을 길으러 또 가기도 한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잘 준비를 한다(기상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

단지 먹고 자는 것뿐인데 그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현지 친구들에게 기대서야 생활이 가능했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무엇이든 능숙하게 해내는 친구들을 보며 마음만큼 잘 따라주지 않는 내 형편없는 체력을 탓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많은 것에 감탄하고 이것저것 물어볼 줄 밖에 모르는 나에게 친구들이 했던 더 놀라운 말은 “이건 그냥 보통의 경우”라는 것이었다. 장작도 잘 패고 불도 잘 피우고 음식도 잘한다.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고 툭질, 못질, 집을 만드는 것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없다. 그에 비해 난 재주도 없고 편리한 기술문명에 젖어 퇴화된 느낌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 자그마한 나의 친구들

이 곳 친구들은 맨발로 못 가는 곳이 없다. 뜨거운 땅바닥도 높은 나무도 강바닥도 어디든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작은 손을 맞잡고 마을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 다녔다.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워터펌프 주변에 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길는 사람들, 빨래를 하는 사람들, 목욕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돕는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샤워를 하고, 나나이(어머니)의 커다란 대야에 빨랫감을 함께 뒤섞으며 적은 물로도 빨래를 깔끔히 하는 요령을 배웠다.

불편함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서로 돕게 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힘든 만큼 작은 일에도 행복해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별들이 빼곡히 장식한 하늘을 영화관 삼아 다른 사람들이 깔 까봐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막으면서 영화를 보던 일, 마지막 날 행사를 준비하느라 오두막(쿠보) 아래에서 리허설을 하던 일,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니며 행사 홍보를 하던 일 모두 기억에 남는다.

그냥 대수롭게 여겼던 것들. 씻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함께 사는 것. 그 것들을 더 불편하게 느끼게 해쳐나가며 그 의미를 다시 알게 되었다.

14일 이후 돌아온 숙소. 전기 계량기가 고장 나 며칠을 촛불을 켜놓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기 때문에.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라온아띠, 알카라의 나나이 집에 방문하다

오로라에 아침이 밝았다. 오로라 지방Aurora Province 바랑가이 알카라BRGY Alcala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풍광 못지 않게 아름다운 나나이들과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다.

라온아띠 단원들은 매일 오전 Inna Ubbang Ti Alcala(알카라의 어머니들)이라는 조직의 회원의 집에 방문 하는 일정을 가졌다. 그 이유는 Women Empowerment project 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활자가 아닌 실제로 Women Empowerment project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Inna Ubbang Ti Alcala

Inna Ubbang Ti Alcala는 Ilocano 일로카노어로 알카라의 어머니들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알카라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Women Empowerment project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직 이름이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필리핀 YMCA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조직 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약 26명의 회원들은 6개의 그룹(거주지역에 따라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역할이 다르다. 돼지 사육, 라이스 케익 만들기, 구멍가게sarisari store 운영 등 서로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다른 그룹 간에도 서로 돕고, 수익의 일부는 이 조직의 유지와 마을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 단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마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이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나나이(어머니)와 함께 여는 오로라의 아침

그렇게 라온아띠 단원들은 매일 아침 나나이들과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여 돼지 사육과정, 라이스케익을 만드는 과정 등의 활동 모습을 보고 직접 참여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나나이들과 즐거운 다과 시간은 땀도 식히고 나나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다.

김이민경 기자<babodak@naver.com>

라온아띠, 1주일 간 파라다이스에 머물다

Maam Elsie 집에서의 홈스테이

지난 5월 18일, YMCA에서 여성역량강화Women empowermen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알카라Alcala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라온아띠는 오로라Aurora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7박 8일 동안 오로라Aurora에 위치한 엘시 여사Maam Elsie(YMCA of The Philippines, 사무총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오로라Aurora는 그 들이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는 카바나투안Cabanatuan과는 또 다른 풍경을 가진 곳으로 한적하고, 코코넛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라온아띠들은 엘시 여사Maam Elsie의 집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집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담을 수영장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향했고, 시원한 물 속에 빠져 수영을 즐겼다. 또한, 매일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배경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여유롭고도 낭만적인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매일 메뉴가 바뀌는 식사시간은

라온아띠들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엄청난 크기의 생선이 식탁에 놓여졌을 때는 하나같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라온아띠 이수진 단원은 “마치 칠성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지냈다. 특히, 매일 매일 다른 식사메뉴 때문에 하루하루가 설렘과,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 아침메뉴를 상상하는 재미에 푹 빠지곤 했다.”라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라온아띠,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해

알카라Alcala에 도착한 라온아띠 팀은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 4회기에 걸친 아동·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는 놀이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수건 돌리기, 핸드벨 연주, 태권댄스,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2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문화교류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라온아띠들은 알카라Alcala 청소년들에게 배운 춤을 작별파티closing party 때 그들과 함께 무대에서 선보여 지역주민들에게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라온아띠 박진영 단원은 “무엇보다 시간적 제한이 컸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가르치거나 배운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 시간을 함께 즐기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천국에서의 소풍은 이런 맛

알카라 어머니들과 떠난 유쾌한 소풍

오로라 마을에 위치한 마닐라 YMCA의 총장, Elsie의 집으로 1주일 간 홈스테이를 떠난 라온아띠 멤버들은 지난 5월 19일, 유쾌한 알카라 어머니Alcala Nanay들과 함께 소풍을 떠났다. 소풍을 간 장소는 푸룩에 위치한 어느 산의 다리 밑 계곡. 비록 물은 무릎까지 밖에 오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는 그곳에서 필리핀의 살인적인 더위를 잠시나마 잊은 듯 보였다. 이윽고, 어머니Nanay들이 직접 준비한 점심식사와 함께 라온아띠 멤버들이 어머니Nanay들을 위해 준비한 약간의 간식과 음료를 나누며 그들의 유쾌한 대화는 계속되었다.

한편, 어머니Nanay들의 요청으로 지난 한 달간 연습을 거쳐 완성된 라온아띠 박진영 이수진 단원의 기타 연주에 맞춰 나머지 단원들은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노랫소리가 그곳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라온아띠 멤버들은 그 동안 오로라에서 단원들을 괴롭히고 말썽을 부리던 개구쟁이 페트릭Petric, 레이난Reynan 등에게 맥아더 장군 못지 않은 협공 향해 전술로 통쾌한 복수를 하기도 했다. 소풍에서 돌아오는 길, 그들은 태평양의 거침없는 물살이 일고 있는 한 해안가에 멈춰서 풍경을 즐기고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들은 이 곳 오로라에서,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을 서로의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한 번 놀아볼까?

라온아띠, 오로라를 떠나는 마지막 날



막 기념사진을 찍은 후 미리 준비된 간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고 뒷정리에 일손을 보냈다.

떠나는 차에 오르기 전, 단원들은 어머니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고 꼭 안아드렸다. 이 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어머니들과 함께한 시간이 또 다른 추억으로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에 기념사진 속 우리도 어머니들도, 다른 곳에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우리와 어머니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웃는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Aurora in a tropical region



한 번은, 한 아주머니께 'Women empowerment'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점이 변했는지 물어 본 적이 있다. 아주머니의 답은 간단 했다 "더 행복해졌다"고. 그 짧은 대답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필리핀 생활 두 달 그리고 반 이제 처음으로 Nueva Ecija 지역을 벗어나 Aurora 지방에 있는 Alcala로의 1주일간의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갑자기 옛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다. 2009년 겨울 영국 유학 시절 40년 만에 가장 강한 오로라가 극지방에서 생성된다고 하여 이를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 했다 무산되어 아쉬워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다른 오로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1주일간의 시간을 되새겨 본다.

Work Camp가 끝나고 2일간의 짧은 휴식을 가진 후 YMCA에서 장기간 계획되었고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Inna Ubbang Ti Alcala라는 여성 모임으로부터 women empowerment와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3시간 반 가량의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다. 굽이굽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맘 엘시의 고향집에 짐을 풀고 짧은 휴식을 마치고 Alcala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그만 광장에는 티를 맞춰 입은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나와 있었다. 처음 시작부터 아주머니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첫날은 간단히 여성 조직에 관한 이력과 그리고 현재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가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되었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많은 수의 아주머니들이 참석하였다. 여성 조직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흥미로웠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표정이었다. 아주머니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그룹보다도 웃음이 많았으며 우리들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그룹 조직 전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



홍빛 단체복이 모두에게 잘 어울렸으며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었다. 마치 초록빛으로 우거진 태평양 옆 오로라의 풍경처럼. 이것이 바로 그 마을에 대한 첫 인상이었다. 그렇게 둘째 날부터 오전에는 아주머니들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점심도 같이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주머니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과 그리고 청소년들로 나누어 4회에 걸친 짧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장난이 과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과 더운 날씨에 고생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한 수업은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아이들에게 춤을 배우기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렇게 4일째 되던 날 예정되었던 도로 아주머니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인근 계곡으로 소풍을 떠났다. 소풍의 흥을 위해 우리는 전날 아주머니들과의 약속대로 어렵게 어렵게 Colt 45를 구한 후 소풍을 떠났다. 아이들과 짧은 물놀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아주머니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보낸 짧은 소풍은 모두가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돌아온 월요일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하고 화요일 라온아띠와 주민들이 함께한 조그마한 마을 축제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주일이 꿈처럼 지나가 버렸다. 사실 처음 Alcala로 출발하기 전에는 1주일간의 일종의 단기봉사활동을 다녀오는 것일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뻘처럼 길게 늘어진 도로와 수많은 트라이시클들이 거리를 누비는 삭막한 Cabanatuan City를 벗어나 코코넛 나무 우거진 자연 속에서 함께한 짧은 1주일의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따듯한 아주머니들의 미소는 잊혀지지 않는다. 음식을 하나하나 먹을 때 마다 이름을 알려주시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먹냐고 물어 주시는 아주머니들과 빙수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항상 챙겨주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 또한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 기수가 보내온 앨범을 꺼내와 보고 또 보시며 이름을 외워 보이시는 모습과, 우리가 떠나기 3일 전부터 메시지를 남겨달라며 각종 티와 양산을 가지고 오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수줍은 소녀 같은 순수한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우리 팀원들은 최선을 다해 그 마음에 보답하려 하였다.



한 번은, 한 아주머니께 ‘Women empowerment’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점이 변했는지 물어 본 적이 있다. 아주머니의 답은 간단 했다 더 행복해졌다고. 그 짧은 대답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경영학을 배우면서 모든 일의 성과 측정을 정량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정성적인 성과가 오히려 더 중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우칠 수 있었던 1주일 이었다. 오늘 보다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내가 되길 기도 해 본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또 다른 엄마가 있는 곳으로



Aurora Community. 그 곳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2의 고향이자 내 엄마들이 살고 있는 소중한 곳.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앞으로의 어머니들의 삶을 항상 응원하며.....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방문한 오로라 커뮤니티는 평생 내 가슴 한 구석에 자리잡을 것이다. 나는 그 곳에서 26명의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났다. 방문 첫 날 Alcala 바랑가 이 홀에서의 첫 만남은 너무나 특별했다. 일찍부터 나오셔서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다가 환한 웃음과 함께 맞아주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그 들만의 여유로움과 우리에게 대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 평생 어디에 가서 이런 환대를 또 받아볼까 싶어 나도 어머니들께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화답했다. 자리를 옮겨 이어진 모임 소개에서 나는 또 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작은 규모, 더욱이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모임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6명의 멤버들이 6 그룹으로 나뉘어 돼지사육, 소규모 상점, 특산품(떡)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매달 1회 교육 총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투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사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엘씨(YMCA of Philippines)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마을에서 Alcala 모임처럼 자신들도 조직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 이 그룹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볼 보듯 뻔한 일!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그룹을 방문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방문 그룹은 6그룹,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각종 생필품 판매와 더불어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도 판매하는데 우리는 채소 수확에 참여했다. 수확이 끝난 후 가진 간식 시간 때 어머니들의 성함 외우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함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으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또 한가지 방법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기복적이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마는 상대방의 이름 기억하기. 첫 단계이지만 상대의 문을 두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나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것으로도 둘째 날은 충분히 보람찼고 즐거웠다. 물론 이 즐거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터! 바로 식사시간 때문이었다. 우리는 엘씨

언니 분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다른 메뉴가 나오는 식단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 낙 중 하나였다. 또한 우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수시로 물어봐 주시고 심지어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융성한 대접에 몸 둘 바를 몰랐지만 너무나 행복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랬다. 밥을 잘 챙겨먹어야 공부하고 일할 힘도 난다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돼지 사육장을 방문하였다. 솔직히 털어 놓자면 나는 돼지를 한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 큰 돼지의 실물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큰 돼지를 평균연령 45세의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내가 어머니들을 내심 평가 절하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정도로 사육장은 깨끗했고 돼지들도 건강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어머니들이 모여서 척척 해내시는 걸 보니 나는 어떤가 비교해보게 되면서 반성하게 되는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얼마나

Women Empowerment in Aurora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꿈을 가지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워크캠프에 이어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오전에 어머니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면 바람가이 홀 뒤 편에 마련된 부엌에서 모두 둘러앉아 재료 손질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팀원 개인 신상부터, 가족,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듣는다면 영양가 없다 할 지라도 어머니들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 큰 역할을 해주었다. 3, 4 기수의 사진 앨범을 함께 보기도 하고 우리 침의 국내 훈련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우리가 Alcalá 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한 해결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한국을 조금이나마 소개하고 마을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A부터 Z까지 사소한 것이지만 마을을 이해하고 나중에 Valle cruz에서 커뮤니티 조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머리 속에 담아 적용할 수 있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 끼니 우리는 어머니들이 준비해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마을 아이들과 Youth를 위한 단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태권도 이외에도 핸드벨, 그림 그리기, Youth 수업은 태권댄스를 진행하였다.

이번 수업은 일수가 적었을뿐더러 생각도 못했던 터라 급하게 수업내용을 정한 탓일까 아니면 내가 소홀해진 탓일까, 원활히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 더욱이 아이들이 워낙 드 세서 통제도 제대로 되질 않고 매 시간을 소리만 지르다가 끝났던 것 같다. 그러나 Youth 수업에서는 5명의 학생뿐이었지만 모두들 성실히 참여해주어 태권댄스와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고 우리 또한 모던댄스를 배울 수 있었다. 일정 중 하루는 피크닉을 갔었는데 이때 Youth중 1명도 같이 참여해주어 더욱 친해질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피크닉 때에는 어머니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기타 치며 노래하고 가족사진도 같이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주셨다. 자신들의 꿈은 한국에 가는 것이라고. 장난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덧붙여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분들이 꿈을 꾸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엘씨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어머니들은 이 곳에 남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우먼 임파워먼트가 무엇인지 비로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자리가 파한 뒤 바닷가에서의 단체 사진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크닉은 끝이 났고 그 날 찍은 사진 속의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함박웃음을 짓는 행복한 모습뿐 이었다.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갔고 어느새 하루만을 남겨 놓은 화요일. 우리는 어머니들이 준비한 Farewell 파티에 참여하였다. 한국 전통놀이 투호와 한복 입어보기를 시작으로 7일 동안 어머니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짧은 소감으로 대신하고 준비한 한국어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기타 반주와 함께 부르고 태권댄스를 선보였다.



또한 한복을 입고 아리랑과 뱃놀이를 불렀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어머니들과 사진을 찍는데 분명 모든 것이 즐거웠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찡했다. 점점 마지막 시간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또 다시 어머니들을 볼 수 있을까 싶었다. 모두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지만 그래도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을 잡는 무언가의 매력이 분명히 여기 Alcalá 마을이 어머니들에게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어머니 한 분, 한 분을 안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난 7일 간의 짧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필리핀에 온 뒤로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런 기분은 또 처음이었다. 짧은 소감 발표 때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Do not forget that you have a another daughter in Korea' 나는 어머니들을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내가 어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 느낀 감정 그대로, 생각 그대로를 평생 기억하며 살고 싶다. Aurora Community. 그 곳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제 2의 고향이자 내 엄마들이 살고 있는 소중한 곳.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앞으로의 어머니들의 삶을 항상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조현경 기자 <ggle1501@nate.com>

환상의 Aurora, 화사한 기억을 남기다



맞다. 다른 어떠한 말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다.
우리가 처음 Alcala에 도착했을 때부터 nanay들은 쩡쩡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우리를 환영해주었고,
언제나 함박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먼저 챙겨주셨다.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들처럼.

‘Aurora’. 지금도 이 단어를 들으면 마구 설렌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고, 이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이론 아닌 이론이지만 내겐 거짓이론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곳에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나도 몰래 어느새 그 곳에서의 기억에 흠뻑 취해 버리곤 한다. 단 일 주일의 찰나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들은 아름답고도 행복한 기억이 되어 일년, 아니 적어도 일백 년은 내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Community Organization을 배우다.



사실, Aurora를 가기 전,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게 될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Aurora로 출발하게 되었고, 솔직히 Woman Empowerment Program에 대한 큰 기대감도 없었다.

근데 이게 웬 말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성단체는 잘 조직화 되어있었고, 프로젝트 역시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소득증대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높은 자긍심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특히나 놀라왔던 점은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교육이 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였다는 점이다. 사전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나였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더욱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응집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Micro-credit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돈사업과 Sari-sari Store 운영의 성공적인 모습에도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단순히, 소득증대차원에서만이 아니었다. 라온아띠 3기 때부터 진행된 ‘Closing Party of Raonatti’는 어느새 Brgy.Alcala의 조그마한 축제로 변모하였다. 그들 스스로 지역 내의 자원(MC는 Day Care Center의 교사, 축사는 바랑가이 캡틴, 무대공연은 바랑가이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활용하여 축제를 꾸몄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진정 축제를 즐겼다.

‘C.O’라는 어렵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존재가 Alcala에서 펼쳐지고 있는 Woman Empowerment Program을 통해 한 걸음 친근히 다가온 것은 확실하고,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6명의 우리 엄마들과 함께 하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Alcala,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Alcala에서의 마지막 날. Closing Party 도중에 MC가 갑자기 Nanay들에게 한 마디씩 전하라고 마이크를 우리에게 넘겼고, 마이크를 받아 든 나는 도통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Salamat po’라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맞다. 다른 어떠한 말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다. 우리가 처음 Alcala에 도착했을 때부터 nanay들은 쩡쩡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우리를 환영해주었고, 언제나 함박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먼저 챙겨주셨다.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들처럼.

Nanay들은 농담도 서슴지 않으셨다. “Jay, 넌 필리핀에서는 싱글이지만, 한국에선 아내가 있지?” 라고 박장대소하며 말을 건네실 땐, 처음엔 놀라 소스라치며 극구 부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멧쩍은 듯 웃으며 “아들 셋, 딸 둘 있습니다” 라며 농담으로 맞받아칠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nanay들과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우리 라온아띠에겐 26명의 엄마들이 더 생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노랫가락에 취하여, 곤히 잠들다.

Aurora에서 머물렀던 1주일 동안의 기억을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주었던 축매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나의 기준에서 뽑자면 세계최고라고도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숙소이

Women Empowerment in Aurora

다. 우리들의 숙소는 YMCA of The Philippines의 사무총장인 Maam Elsie의 집이었고, 뜻하지 않게 귀빈 아닌 귀빈 대접을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식사시간은 수라상이 따로 없을 정도로 푸짐하였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절로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저녁식사를 기다리는 맛에 하루를 산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였으니,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그리고, 세차게 쏟아 내리던 빗줄기를 배경으로 둥그러니

둘러앉아 Smiling Red Horse와 함께 기타가락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면, 어느새 창문 틈에 개똥벌레가 나타나 반딧불을 반짝거리며 춤을 추었고, 그렇게 우리는 낭만에 흠뻑 젖은 채 매일 밤을 노래하였다.

여유, 낭만 그리고 배려 속에 우리는 Aurora에 물들었고, 그 화사한 기억은 가슴 한 구석에 영원히 자리잡아 있을 것이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오로라에서 만난 나나이



어렵게 도착한 오로라 여성조합 사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이곳의 여성들은 자신을 '나나이 OO'으로 소개하며 나를 덩석 덩석 안아주었다. 낯선 환경이 어색해서 뻣뻣하게 굳어있던 내 몸은 금세 말랑해졌다.

나는 엄마가 아닌 다른 동년배의 여성에게 쉽게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에게 친근하게 “엄마” “이모”라고 잘 못한다. 잘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식의 호칭문화를 싫어한다. 집(가정)을 나와서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어엿한 노동자 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주어진 일 이외에도 엄마 또는 이모로써 감정노동까지 수행해야 한다. 내 자식 내 조카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의 엄마, 이모가 되어야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다. 우리가 아무리 친근함을 표현한다고 중년 남성 노동자에게 아빠, 삼촌이라고 쉽게 부르지는 않지 않는가?

그러나 이곳 필리핀에 와서 나는 낯선 여성들에게 쉽게 '나나이Nanay'라는 호칭을 부르고 이내 그 관계를 쫓게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본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

이내 (물리적으로) 헤어지게 될 사이.

어떻게 우리는 나나이(어머니)와 땡땡(이 곳에서의 별칭)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이틀 늦게 도착했다. 그 이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장거리 이동을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현지스텝들의 우려에서였다. 매일 밤 39℃를 훌쩍 넘기던 열도 현지 스텝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잠잠해지고(열이 내릴 때마다 “너 덕분에 나는 행복해. 너의 열은 이제 사라질꺼야.”라고 말해주던 아메 마이엣의 목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오로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오로라 여성조합 사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이곳의 여성들은 자신을 '나나이 OO'으로 소개하며 나를 덩석 덩석 안아주었다. 낯선 환경이 어색해서 뻣뻣하게 굳어있던 내 몸은 금세 말랑해졌다. 그렇게 나는 26명의 나나이가 생겼다.

오로라 여성조합 Inna Ubbang Ti Alcala의 시작



시작은 위기였다. 태풍피해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오로라 지역에 YMCA는 처음에는 구호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을 찾게 되었다. 일시적인 구호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싶었던 주민들과 YMCA는 여성 역량 강화 사업 Women Empowerment project를 시도하게 되었다. 단지 소액 대출 micro credit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이 자생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필리핀 YMCA는 긴 시간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실을 얻었고, 현재 오로라 여성조합은 필리핀 사회 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 되고 있다. 오로라 여성조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익의 일부를 조합 유지를 위해, 마을을 위해 쓴다는 점이다. 이는 각 가정의 행복한 삶은 마을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었다.

좀더 깊숙이 나나이 개인들의 삶 속에 여성조합이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여성 역량 강화 사업 Women Empowerment project은 각 가정의 경제적 이익증대뿐만이 아니라 마을 Barangay 전체에 활력이 된 건 사실인 듯 했다.

Women Empowerment in Aurora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Pink!

나나이들과 보낸 하루하루는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나이들이 다 도착하면 조합원이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상황을 둘러본다.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함께 점심을 준비해 먹고, 이후에는 나나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매일이 새로웠다.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매일의 새로움은 나나이들의 티셔츠이다. 매일 똑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예쁘게 맞추어 입고 오는데 어떻게 그날 그날의 티셔츠 색깔을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어봤더니 간단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신단다. 커다란 모자, 특유의 천진난만함, 큰 웃음소리, 매일 만나도 매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나나이들의 끈끈한 관계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안녕, 바다)

ilocano 일로까노 어로 바다는 '바이바이'이다. 잊혀지지 않

는 나나이들과의 기억 중에 하나는 나나이들과 큰 트럭을 타고 바다를 지나며 '바이바이, 바이바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인사하던 일이다. 나나이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었고, 이 이별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었던 이별이었기에 그 인사는 왠지 더 서글펐다. 우리는 나나이들과 헤어지기 전에 함께 바다로 소풍을 떠났다. 함께 맥주잔도 기울이고 노래도 부르며 이야기 나누는 즐거운 자리였다. 나나이 피나와 함께 나란히 앉으면 피부색을 비교하며 '블랙커피 빛이다. 밀크 커피다, 우유 빛이다'라며 농담을 하시곤 하는데 그 날은 그러다 손을 마주하고는 '울퉁불퉁한 내 손은 못생겼다'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 손이 훨씬 아름답다며 이 손은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 냈다고 손사래 쳤다. 동시에 거친 나나이 피나의 손과 닮아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엄마의 손이 생각났다. 그리고 나아말로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오로라를 떠났다. 서로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나에게도 또 다른 나나이가 생겼다.

김이민경 기자<babodak@naver.com>

유쾌한 엄마들과 함께한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1주일



멀리까지 늘어진 가로수, 드넓은 해안가, 야자수 나무와 코코넛 나무, 그리고 산등성이에 걸쳐진 몽게구름과 한국의 가을 하늘만큼이나 높고 푸른 필리핀의 하늘이 낯선 곳에서 이제 막 친구가 된 사람들과 떠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들이를 더욱 설레게 했다... 난 그 곳에서 항상 즐겁고 편안했었다. 마치 행복한 순간을 꿈꾸고 있는 아이처럼



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도록 장려하며 그 원금의 이자로 이 커뮤니티는 운영되고 있다. Alcala의 이 커뮤니티는 내가 본 조직 중 가장 활발하고 잘 조직된 단체인 것 같다. 각 각의 멤버는 6개의 작은 그룹에 속해있고 이 그룹들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 시장에 팔거나 Rice cake (한국의 떡 같은 것)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또한 돼지를 키워 시장에 팔아 장사를 하거나 사리 사리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필리핀, 얼마나 더 많은 매력이 숨어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된다. Work camp와는 또 다른 자연경관,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또 다른 추억들... 첫날 오로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겨준 이들은 다름 아닌 그 지역 커뮤니티의 어머님들이었다. 사실 어머님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열정과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풋풋했다. Ymca와 Alcala마을의 인연은 처음 자연재해를 입은 그 지역을 Ymca가 도우면서 시작되었다. 3년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Women Empowerment in Aurora

멤버는 총 26명이고 Women empowerment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두 명의 남자 멤버가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남자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그들을 경쟁 상대로만 봐선 안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나 할까.



7일 동안 Alcala에 머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Nanay들의 옷차림이었다. 매일 다른 옷이지만 항상 같은 색깔로 맞춰 입고 오시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다. 마닐라 Ymca의 National General Secretary 인 Else에게 여쭙보니, 그것은 Nanay이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결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 커뮤니티의 조직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우리 라온아띠 팀끼리도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는 것이 예삿일이 아닌데 나로써 너무 신기했고 다시 한번 Women empowerment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유쾌한 그녀들과의 시간이 지나고 다 함께 계획했던 소풍 날이 되었다. Daniel의 집에서 트럭을 얻어 타고 약 30명의 사람이 근처 산에 있는 계곡으로 물놀이를 간 것이다. 멀리까지 늘어진 가로수, 드넓은 해안가, 야자수 나무들과 코코넛 나무, 그리고 산등성이에 걸친 뭉게구름과 한국의 가을 하늘만큼이나 높고 푸른 필리핀의 하늘이, 낮선 곳에서 이제 막 친구가 된 사람들과 떠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들이를 더욱 설레게 했다.

이윽고 도착한 다리 밑 계곡의 한 줄기. 물은 너무나 맑고 깨끗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사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물속에 몸을 맡겼다. 한 바탕 물놀이가 끝난 후 맥주 파티가 벌어졌다. 전날 Colt 45(도수가 센 맥주 중 하나)를 45명을 사오라고 농담을 하던 Nanay emf은 역시 대단했다. 5월 1일 Work Camp가 시작된 후부터 배우기 시작한 기타 덕분에 몇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된 나와 박진영 단원이 기타로 반주를 하고 멤버들이 다같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득 3월 초, 기타는 필리핀 현지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소통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라면서 배워 두면 좋을 거라는 모리또의 말이 떠올랐다. 기타 연주로 무르익은 분위기... 잊을 수 없는 기억들, 웃음을 참지 못했던 순간들, 재미있는 농담들이 오가며 그렇게 우리의 나들이는 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았던 Nanay들과의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단합을 위해 열린 Closing Party! 태권 댄스 음악과 함께 우스꽝스럽게 믹스된 아브라카타브라, 노바디, 쏘리쏘리, 뽀뽀뽀뽀 댄스가 분위기

를 고조시키고 한복을 입고 한국 민요인 아리랑과 뱃노래를 열창하고, Alcala Youth에게 배운 댄스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이래로 그렇게 많은 맘을 흘린 건 아마도 두 번째 인 것으로 기억한다. 첫 번째는 당연 Work camp동안 이었던 것 같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유쾌한 엄마들에게서 그럴싸하게 말로 펼쳐낼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형언할 순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지혜와 교훈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자신하며 말 할 수 있는 것은 Alcala에서 머무는 지난 7일 동안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인상을 찡그린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것이다. 난 그 곳에서 항상 즐겁고 편안했었다. 마치 행복한 순간을 꿈꾸고 있는 아이처럼.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가슴뛰는 6월의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